

3)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와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1)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 1340-1400)

제프리 초서는 1340년 주류상인인 존 초서(John Chaucer)의 아들로 런던에서 출생했다. 초서는 어려서부터 문학을 좋아하여 프랑스의 로망스 작품들을 즐겨 읽었다. 이후 그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들 작품들은 후일 초서의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서 이전의 영국 문학작품들은 대다수 프랑스 작품들을 번역했거나 모방한 것이 전부였는데, 초서로 인해서 영어로 된 영국적인 문학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초서의 문학적 삶은 크게 3시기로 나뉘어 진다.

제 1기 프랑스 시기(1359-1372)는 초서가 당시 유행했던 프랑스 궁정연애풍의 작품에 심취한 시기였다. 제 2기 이탈리아 시기(1372-1386)는 단테(Dante), 보카치오(Boccaccio) 등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던 기간이었다. 이때 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작가들이 주로 사용했던 라임 로얄(Rime Royal 10음절 7행연)이나 영웅대구(Heroic Couplet)과 같은 형식을 자신의 작품에 주로 사용했다. 이 시기에 집필된 대표적 작품으로 『트로일러스와 그레시다』(Troilus and Cressida)와 『선한 여성들의 전설』(The Legend of Good Women) 등이 있다. 제 3기 영국 시기(1386-1400)는 초서 개인에게는 아내의 상실과 경제적 파탄에 고통 받았던 불행한 시기였지만, 작가로서 가장 완성된 업적을 이룬 시기였다. 제 1기와 2기에서 보여준 유럽적인 모방에서 벗어나 영국 사회를 반영한 독창적인 소재와 내용을 다룸으로써 영문학의 최대 걸작 중 하나로 꼽는 『캔터베리 이야기』를 완성했다.

(2)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

『캔터베리 이야기』는 영웅대구(Heroic Couplet) 형식으로 1700행의 운문과 산문으로 된 2개의 이야기인 『멜리베우스의 이야기』(The Tale of Melibeus)와 『목사의 이야기』(The Parson's Tale)로 이루어져 있다. 캔터베리 사원을 참배하려는 29인의 순례자들은 런던 교외의 태버드 여관(Tabard Inn)에서 머물게 된다. 여관 주인은 순례자 각자가 이야기 두 가지씩을 하게 해서 그 중 제일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제안한다. 순례에 참가한 사람들은 상인, 목수, 조각인, 제분업자, 선원, 집사, 육탕의 여자, 속죄사, 소지주, 향사, 기사, 여자 수도원장, 수녀, 재판관, 잡화상 등으로, 이들은 당시 영국 사회의 거의 모든 계급과 직업을 대변하고 있다. 나중에 가담한 성당참사회의원(canon)과 종자(Yeoman)을 합쳐 모두 31명의 순례자들이 등장하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모두 24편으로 『캔터베리 이야기』는 미완성이다.

기사 이야기(Knight's Tale)

방앗간 주인 이야기(Miller's Tale)

장원 관리인 이야기(Reeve's Tale)

요리사 이야기(Cook's Tale)

변호사 이야기(Man of Law's Tale)

선원 이야기(Shipman's Tale)

여자 수도원장 이야기(Prioress's Tale)

기사 토파스 경 이야기(Tale of Sir Thopas)

수도사 이야기(Monk's Tale)

수녀원 사제 이야기(Nun's Priest's Tale)

의사 이야기(Physician's Tale)
 속죄사 이야기(Pardoner's Tale)
 바스의 여인네 이야기(Wife of Bath's Tale)
 수도사 이야기(Friar's Tale)
 법정 소환계 이야기(Summoner's Tale)
 신학생 이야기(Clerk's Tale)
 상인 이야기(Merchant's Tale)
 기사의 종자 이야기(Squire's Tale)
 소지주 자작농 이야기(Franklin's Tale)
 수녀 이야기(Second Nun's Tale)
 성당참사회의원 종자 이야기(Canon's Yeoman's Tale)
 식료품 조달원 이야기(Manciple's Tale)
 목사 이야기(Parson's Tale)

『캔터베리 이야기』는 이전의 문학작품과는 다른 그 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소재로 삼고 있다. 초서는 그의 만년 10년 동안 『캔터베리 이야기』를 집필했는데 작품을 통해 중세의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제도와 문제점들을 해학적인 태도로 풀어내고 있다. 초서의 작품은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언어학적으로도 중세영어 연구의 표준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4) 중세 연극

중세 교회는 성서적 내용을 문맹의 대중에게 전파하고 교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삶으로 대중을 계도하기 위해 연극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중세 교회에 의해 공연된 대표적인 연극 형식으로 기적극(Miracle Play, Corpus Christi Cycle Play)과 도덕극(Morality Play)이 있다.

(1) 신비극(Mystery Play)과 기적극(Miracle Play)

기적극과 신비극은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유행했다. 성서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해 기적극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을 삽화처럼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이해를 도왔다. 초기에는 교회 내에서 예배식 연극의 형태로 공연되었지만,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엄숙성을 연극이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연극을 교회 외부로 옮겨 공연하게 하였다. 연극은 도시의 길드조합과 교회의 협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말이 이끄는 이동식 마차무대(pageant)를 가지고 연극을 공연하였다.

신비극의 내용은 주로 성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천지창조, 에덴동산과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예수의 수난과 부활 등 성경속의 위대한 사건이나 모험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신비극의 대표작은 예수의 부활을 소재로 한 『코퍼스 크리스티 사이클 플레이』(Corpus Christi Cycle Play)가 있다.

기적극은 기독교 성자들의 생애와 그들의 업적을 주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다. 궁극적으로 기적극과 신비극은 기독교적 교리와 내용을 대중화하는데 활용되었다.

(2) 도덕극(Morality Play)

신비극이나 기적극이 기독교적 사건이나 교리를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출발했지만 행동과 플롯 전개에 기반을 둔 연극적 요소는 미미했었다. 이후에 생겨난 도덕극은 보다 연극적 요소를 풍부하게 갖추었으며, 그 내용도 기독교적인 올바른 삶, 미덕, 악행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극화하였다. 도덕극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법은 선, 악, 탐욕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극적 인물로 의인화하는 알레고리(allegory)를 주된 기교로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도덕극으로는 『인내의 성』(The Castle of Perseverance 1405-1425)과 『만인』(Everyman 1465-1475)이 있다.

『인내의 성』은 중앙에 성의 모양을 한 무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주변으로 둥글게 도랑을 파고 도랑을 따라서 다섯 개의 무대가 있다. 주인공인 “인류”(Mankind)는 인간의 탄생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연기하게 된다. “인류”는 “원죄”의 공격을 받지만 고해를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내의 성』은 기독교적 인간관을 시각화하고 있다. 『인내의 성』이 공연된 무대 형식은 후일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의 형태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만인』은 인간의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레고리적 등장인물들(allegorical characters)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만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 주인공 “만인”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호출 받게 되는데, 천사는 누구든 함께 외로운 죽음의 길에 동행할 친구를 데려와도 좋다고 허락한다. “만인”은 자신이 평소에 친하다고 여겼던 “우정”(Fellowship), “친지”(Kindred), “지식”(Knowledge) 등을 찾아가지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의 동행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만인”과 동행을 기꺼이 허락한 친구는 “선행”(Good Deeds)이었다. “만인”과 “선행”은 마침내 갈라진 무덤으로 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만인』은 기독교적 종교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간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에게 보여준다.